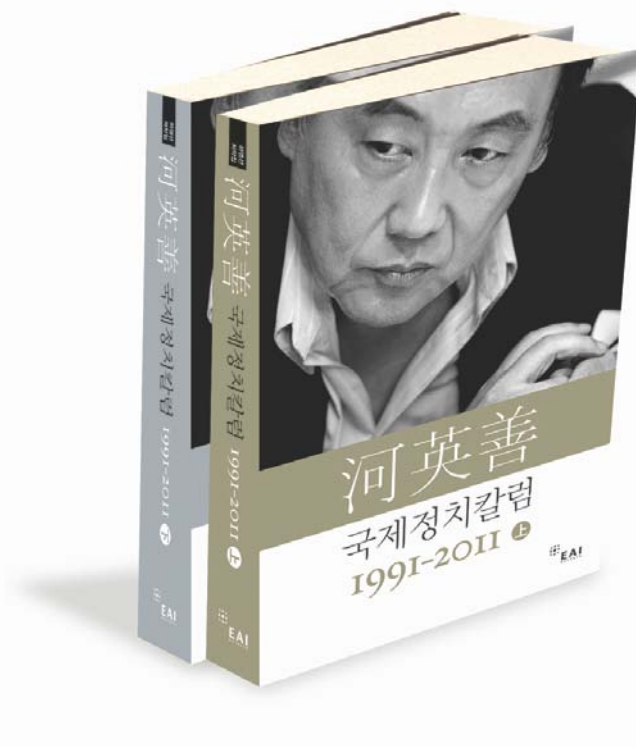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

河英善_{하영선}

그가 말하는

·한·국·외·교·2·0·년·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上·下

지은이_ 하영선

발행일_ 2012년 6월 1일

페이지_ 468쪽(상) · 616쪽(하)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가 격_ 22,000원(상) · 28,000원(하)

ISBN_ 978-89-92395-22-9 94340(세트) / 978-89-92395-23-6(상) · 978-89-92395-24-3(하)

문 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격동의 국제정치 20년

이 책은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칼럼과 대담 등을 엮은 것이다. 지난 20년은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반 세기 동안 전 세계를 양분하며 이념을 중심으로 극한 대결을 벌였던 냉전이 종식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종족분쟁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중동의 긴장도 화염으로 타올랐다. 그 와중에 유럽은 단일통화권을 형성하는 거대한 통합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역사의 새로운 실험으로 창의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독점적 리더십을 행사했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가 미국의 심장을 겨냥하였다. 9·11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주력하던 미국은 20세기 대공황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이했으며, 그 여파는 전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격동의 한국외교 20년

격동의 세계 20년 동안 한국외교도 편할 수 없었다. 한국은 지난 20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외교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중에서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탈냉전의 20년을 지내는 동안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의 화해의 무드는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가시화되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과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북한과의 유엔 동시 가입 또한 성사시켰다. 그것도 잠시,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난제를 겪으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망으로 3대 세습이라는 북한체제의 몰역사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천안함포격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겪으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긴장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주변 정세를 보아도 한국외교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상대적 후퇴를 경험하는 미국,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 과거 미국을 넘보던 경제대국 일본의 추락, 극동의 중요성을 새롭게 판단하기 시작한 러시아 등이 긴장과 대립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용미(用美), 변환, 복합 그물망 외교

하영선 교수는 한국외교에 대해 탈냉전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명분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에 기반한 냉철한 상황 판단과 철저한 정책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친미 대 반미의 대립이 아니라 한국외교에서 핵심적 강대국인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용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근대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변환(transformation), 국제정치의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층적으로 엮고 통합해야 한다는 복합 그물망(complex network) 외교, 이 세 가지는 지난 20년 국제정치와 한국외교를 읽는 주요 개념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의 식견과 통찰을 통해 지난 20년의 역사를 읽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외교의 숙제,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해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 이 두 가지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위한 냉철한 인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300편의 칼럼과 100편의 사설을 쓰면서 늘 가슴과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19세기 한국 개화정책과 사상의 대부 역할을 했던 박규수가 남긴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차가운 눈으로 시무를 보고 비운 마음으로 고서를 읽는다)라는 글귀다. 국제정치를 제대로 알고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충고다. 시무와 고서는 상호보완적이다. 고서를 통해서 안목을 키우지 않고서는 시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시무를 모르면서 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시무를 바로 보려면 총혈되지 않은 냉안이 필요하며 고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욕심 없는 허심이 필수적이다. 20년 국제정치 칼럼쓰기는 과거와 다른 북한국제정치학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 마련한 시각은 지난 20년의 국제정치와 남북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20년의 국제정치 칼럼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격동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알리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미소 중심의 냉전질서는 예상보다 빨리 미중 중심의 복합질서로 바뀌고 있으나 한반도의 남북한은 지도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냉전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시대착오적 진보와 보수는 복합시대의 빠른 변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철נות은 논쟁을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다. 국제정치 칼럼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쓰게 만든 원동력은 남남, 남북, 미중의 3중 공진(共進)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우선 국내의 남남 갈등부터라도 풀어보려는 꿈 때문이었다. 동시에 19세기 한반도 현실을 일기체로 남긴 황현의 《매천야록》이 그 나름의 시각에서 당대의 현실을 소상하게 전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듯이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 탈냉전과 복합의 20년사에 대한 작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 저자 인사말 중에서

하영선 河英善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과 평화를 연구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역사 속의 젊은 그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네트워크 세계정치》,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에서 지난 30여 년간 강의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이 책을 포함한 20권 가량의 《하영선 저작집》을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 A 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